

한자 전파와 아시아 공동체

글쓴이 : 진순익(陳順益)

번역 : 주혜진, 강지훈

네 번째 강연은 중문과 임문경(林文慶)교수님이십니다. 강연 주제는 ‘한자 전파와 아시아 공동체’입니다. 임교수님의 강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어와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 인류 역사 문명이 빠르게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문자 발전사에 있어서 한자는 가장 특수한 심볼 시스템(Symbol System, 부호 체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자가 독립적이고 완전한 형태를 가지며 특정한 뜻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옆모습을 모방하면서 만들어낸 ‘人’자, 높낮이에 따라 그려진 ‘山’자, 완연한 물의 모습을 띤 ‘水’자가 바로 예시입니다. 또한 한자는 각 부건(部件)의 조립으로 더 많은 한자를 만들어내 점차 복잡해진 사회에 부응하고 사람들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人’자에 ‘山’을 추가하면 ‘(신선) 仙’이 되며, ‘人’에 ‘水’를 추가하면 ‘(빠질) 溺’이 되고, ‘人’에 ‘木’을 추가하면 ‘(쉬) 休’가 되어, ‘人’에 ‘共’을 추가하면 ‘(이바지할) 供’이 되어, ‘人’에 ‘侖’을 추가하면 ‘(인륜) 倫’이 되었습니다. 한자가 아닌 다른 표음문자의 경우 음성을 통해 어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음의 변화가 생기면 기록된 어휘도 달라지니 변동성이 큼니다. 그에 비해 한자는 표의문자이기에 안정성이 높고 비록 2천여년이나 된 고문헌이라도 읽기와 독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중국 주변에 위치한 국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한자를 서면어로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자로 뜻과 음성을 표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과 상관없이 음성만 표기하는 경우, 또는 뜻만 표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쓰여지면서 형태가 다양해질 수 밖에 없기에 주변 국가에 전해진 한자가 중국이나 대만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爲’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한나라 허신(許慎) 『說文解字』의 소전체(篆體)에는 ‘𠄎’로 되어 있으며 위 부건은 상형(象形)으로 ‘爪’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를 남조(南朝) 시대 양나라 고야왕(顧野王) 『玉篇』에 쓰인 ‘爲’를 보면 해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나라 『廣韻』에 이르러 속자체(俗體)인 ‘為’를 수록했는데 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이를 더욱 간략화해서 ‘为’의 형태로 총 4 획의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전승한 결과, 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爲’, 중국에서 ‘为’, 일본과 대만이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비하여 한국은 『說文解字』의 형태를 이어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서 한자를 차용할 뿐만이 아니라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인 육서(六書)를 활용해 ‘회의’(會意, 두 자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든 것)와 ‘형성’(形聲,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합하여 새로 이루어진 글자)의 원칙으로 독자적인 한자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凵’(연, 지연), ‘臙’(머지않아, 곧), ‘悶つかえ’(막히다, 가로 막다), ‘凧おろし’(바람이 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다)등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 낸 한자입니다. 한국에도 ‘尘’(塵의 약체. 대륙 간체자는 ‘尘’), ‘畚’(수전, 논밭), ‘垆’(부지, 기지), “(메밀) 등 중국에 없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밖으로 퍼져나간 한자 문화가 동아시아로 퍼져 한자문화권이 형성되었습니다. 한자 전파 과정 중 주변 국가에서 한자의 계승과 창신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인 한자와 어휘를 만들어서 거꾸로 중국어 네이티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만에서 ‘圧’, ‘伝’, ‘応’, ‘勞’, ‘井’ 등 일본식 한자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野球’, ‘經濟’, ‘串燒’, ‘場所’, ‘宅急便’ 등의 고유명사들이 또한 일본 한자 어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자의 차용은 문화적 충격과 사상의 유입이 작용하는데 따라서 관련 지역연구는 문화연구의 접근이 있어야 편파되지 않고 객관적인 한자 문화권의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 교수님께서 고대 한자 갑골문과 육서의 소개를 이어 대만, 중국 한국, 일본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같은 한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한자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한자, 중국 간체자가 실례입니다. 교수님께서 ‘한자 전파 과정 중 주변 국가에서 한자의 계승과 창신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인 한자와 어휘를 만들어서 역으로 중국어 네이티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의 말씀처럼 일본에서 ‘凵’(연, 지연), ‘臙’(머지않아, 곧), ‘悶つかえ’(막히다, 가로 막다), ‘凧おろし’(바람이 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다)등 일본이 만든 한자를 ‘국자(國字)’ 또는 ‘일본식 한자’라고 합니다. 이는 한자가 더 이상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 뿌리 깊이 박힌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에도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현대한어사전』에도 많은 일본식 한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 외에 ‘일본식 한자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흔히 사용하는 ‘민주’, ‘과학’,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사회과학과 인문학 관련 용어는 거의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이제는 일본인과 같이 우리도 이 단어들이 외래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대만 젊은이들은 일본식 한자어를 더욱 편히 받아들여 ‘素人’, ‘達人’, ‘色違’ 같은 단어들은 어색함 없이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대만 젊은이들은 ‘일본식 한자어’를 이토록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 전반에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토대가 있어서입니다. 둘째, 일본 한자와 대만 한자의 유사성이 높으면서 한자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행태에서 의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이유이고 덧붙여 이가 중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셋째,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한자어로 화제성과 신선함이 있어 새로운 자극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른바 ‘새로운 자극’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 추구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첫째 주 정준곤(鄭俊坤)박사님의 강연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나라', '국경', '국민'과 '내적 사상'의 장벽 외에 '언어의 장벽'을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는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합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독자적인 소리와 문법체계를 갖고는 있어서 언어가 각자 다르지만 한자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980년 이후로 점차 한자 사용을 낮추려고 했었지만 십여년이 지나 다시금 한자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정부가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 한자교육을 다시 추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또한 경제 발전 필요성에 의해(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중 한자문화권이 40%를 차지함) 한자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각국이, 특히 동아시아에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는 한자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